

# 광주 서구, 교통문화지수 5개 자치구 '꿀찌'

광주시 서구의 교통 문화 및 안전도가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지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해 지자체별 순위에 따라 A(10%), B(25%), C(30%), D(25%), E(10%)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가 담겼다. 평가는 운전행태(제한속도·신호·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등), 보행행태(무단횡단 금지·횡단 중 스마트폰기 미사용 준수율 등), 교통안전(지자체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교통사고 사상자수 등) 등 18개 지표에 따라 이뤄진다. 광주시는 올해 78.44점으로 종합 D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 76.52점보다 1.92점 올라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지만, 전국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발표**  
**운전·보행행태 등 18개 평가**  
**D등급 69개 자치구 중 58위**  
**남구 B등급 21위·동구 25위**  
**'D등급' 광주시는 광역 13위**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운전행태 47.22점(55점 만점, B등급), 교통안전 14.43점(25점 만점, D), 보행행태 16.78점(20점 만점, D)을 받았다. 전남도는 82.85점을 받아 경남(83.09점)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운전행태 47.59점(B), 교통안전 18.13점(B), 보행행태

17.13점(B)으로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자치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광주시 서구가 74.7점(D)을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58위에 머물렀다. 남구는 80.1점(전국 21위·B)을 받았으며 동구 79.7점(25위·C), 광산구 78.7점(33위·C), 북구 78.6점(34위·C) 등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서구는 운전행태 48.69점(A), 교통안전 9.27점(E), 보행행태 16.71점(D)으로 교통안전·보행행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구의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낮은 점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구는 교통안전 세부 항목에서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0.50점(2.5점 만점, E),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2.52점(3.5점 만점, D),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1.01점(3점 만

점, E)을 기록했다. 서구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발생정도 3.24점(14점 만점, E), 교통안전실태 6.03점(11점만점, D) 등 점수를 받았다. 보행행태 중에서는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63.21%(E),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95.21%(C)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는 이륜차 불법주행 관련 법규 준수율이 58.74%에 그쳐 전국 평균(59.39%)을 밑돌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서도 광주는 안전모 착용률 23.64%(전국 평균15.10%)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PM 주행방향 준수율은 89.09%(전국 평균 96.18%), 인도침범 준수율은 22.73%(59.97%), 탑승인원 준수율 94.24%(95.15%) 등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수완지구 풍영정천에 기름 유출 광산구, 식품회사 직원 고발키로 긴급 방제로 어류 피해는 없어

광주시 광산구가 수완지구 풍영정천에 기름을 유출한 식품회사 직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광산구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광산구 장덕동 풍영정천 배수로 주변에 기름띠가 고여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방제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름은 광산구에 있는 식품회사 직원이 전날 오후 경유가 담긴 기름통을 재사용하기 위해 기름통을 행구면서 안에 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안에 있던 1리터량의 경유가 하천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청, 광산구청 등이 현장에 조사한 결과 유막 현상과 기름냄새를 확인했고 관바로 흡착포 등을 이용해 배수로 방제작업에 나섰다. 기름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재활용 얼마나 될까 설 연휴가 끝난 13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연휴 기간 동안 버려진 스티로폼, 일회용품 등을 분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검찰, 300억대 체불 혐의 대우위니아 회장 소환

300억대 임금 체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우 대우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광주에 있는 위니아전자 근로자들의 임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우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뒷

선으로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구속돼 재판 중인 박 대표에 대해서도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교육청, 1학기 늘봄학교 32곳 운영

**수창·광천·금호·문화초 등서**  
**하반기 155개 초교로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올 1학기에 32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1학기에 수창·광천·금호·문화초 등 광주지역 32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를 운영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 전체 155개 초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 학생은 초등 1학년으로 각 학교별로 부모들의 수요를 조사해 방과후에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장·발달과정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운영 학교에는 전담 교사가 배치된다.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교원과 분

리된 체계로 운영된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들어선 '늘봄지원센터'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강사 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 30개 기관을 공모·선정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모두가 함께 돌보는 늘봄학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정책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지검 "피해자 의사 무관 기습 공탁 근절할 것"

5·18 부상자회원 재판에 적용

광주지검이 피해자의 용서 없이 감형만을 위해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기습공탁'을 근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간부직원 A(63)씨가 판결 선고 1주일 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판결 선고를 불과 7일 앞둔 시점에 A씨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수명 의사 확인 제도'에 따라 피

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기습 공탁의 경우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정권 시인 043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